# 샘 라이프스타일

## (눅20:19-26)

19.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20.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21.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22.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23.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24.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25.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6.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샘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샘 라이프스타일'
샘은 한자로는 용천이라 그러지요, 옹달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프스타일인데 샘과 같다.
샘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대로 지층 중에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 층이 있는데, 지층이 쭉~ 진행되다가 어느 장소에서는 지표를 향하여 올라가게 돼서, 그 지표에 구멍이 나면서 지하수 층의 물이 지표로 올라오는 곳, 그곳이 바로 샘입니다.
이러한 샘을 비유적인 틀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 샘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의인화해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봐서 그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특징은 샘은 지하수 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샘 입니다.
아무리 웅덩이가 있어도 그 웅덩이에서 물이 솟아나지 않으면 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샘은 지표면에 난 웅덩이요 구멍이지만, 반드시 보이지 않는 지하수 층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점을 우리가 좀 유의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지하수 층과 연결이 되어서 샘은 물을 샘솟게 해서 지표위로 올려 보냅니다.
그럴 때, 절대 샘 자체는 지표위로 물을 보내면서 그 물의 용도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물을 부어내고 있는, 물을 솟아나게 해서 흘려보내려 하는 그 지표의 상황을 고려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샘은 온 관심이 지하수 층과 연결되는 것이고, 연결 되면 물은 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샘이 놓여 있는 지표의 상황, 현실적인 어떤 모습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물을 그냥 내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이, 무슨 산 밑에 있거나 산 속에 바위틈에서 솟아나거나, 아니면 사막이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쓰레기가 잔뜩 모여 있는 그 곳에서 샘이 터졌거나, 샘은 쓰레기장 속에서 터졌어도, 자기 물이 쓰레기 더미로 흘러간다면 어떻게 되나, 이 더러운 곳에 맑은 물이 가면 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표의 상황을)

이런 걱정을 비유적으로 의인화 시켜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너무너무 도움이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떡하던지 올무에 잡아넣으려 합니다.
그래서 대표자들을 뽑아 가지고 예수님께 보냅니다.
정탐이라 그랬어요, 정탐.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당원이라 그래요.
바리새인과 헤롯당원은, 평상시에는 서로 상극, 앙숙인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이 계획에는 아주 일치단결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잡기 위해 얼마나 골머리를 앓고 회의를 했겠습니까?
거기에 아주 상책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예수님을 올무로 넣기에.
세금을 로마에 바칠까요, 말까요?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기가 막힌 질문이냐 하면, 사형집행권이 없던 자기들은 어떡하든지 로마정부에 그리고 로마권위의 힘을 이용해야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로마정부에 책잡힐 일을 드러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에 대해 굉장히 나름 깊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물어보면, 선민의 민족주의적 정서가 강하면 강할수록 로마정부 식민지 종주국에 세금 내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지 말라고 얘기하게 되면 곧바로 로마정부 총독에게 알리면 됩니다.
그러면 로마총독이 사형을 내릴 수 있으니까, 최선의 기대하는 대답이 되지요.

그러나 그 최선의 기대하는 대답이 안 주어지더라도 차선의 대답이 주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차선의 대답은 '세금을 내라',
그러면 지금 이들이 무서워하는 게 백성들인데,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 듣기를 좋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쫓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라' 그러면 대다수의 선민인 유대민족에 정서를 이루고 있는 반(反)로마의 정서에 반대되는 대답이기 때문에, 이반(離反)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대군중이 예수님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좋습니다.
근데 이들이 무릎을 치면서 좋아한 것은, 기대하는바 최선의 대답과 차선의 대답 이외는 다른 대답이 없는 거예요.
낼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낸다, 만다'라는 대답 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 저는 박수를 쳐요.
인류역사상 모든 종교, 철학사상을 다 통틀어서,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서, 명언 Top 10을 고른다면 이 말씀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가훈을 삼아서 액자에 넣어 가지고, 족자를 만들어서 붙여도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걸 오해할 때가 있어요.
무슨 예수님께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다.
정치와 종교는 별개의 것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입장에 대한 소신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 아닙니다.
우린 너무 우리식으로, 견강부회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캘빈이 국가의 기능을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국가는 교회가 평온하게 잘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예배나 이런 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그러한 울타리의 기능을 갖는다.'
이런 캘빈의 사상을 앞서서 얘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33년을 관통해온 예수님의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것이에요.
이들이 간계를 가지고 왔다고 예수님께서도 그 간계에 맞서는 또 다른 계략으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일관된 라이프스타일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을 하신 것이에요.
세금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대답하실 때의 이 마음가짐과 소신과 생각으로, 다른 문제 역시도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실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라이프스타일은 어떤 것이기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대답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샘 라이프스타일' 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이 땅을 살아가시는 삶의 방식, 라이프스타일이 뭐냐 하면 '샘 라이프스타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앞에서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마음이, 우리 마음이 천국과의 연결, 하나님 살아계신 그 분과의 연결이 지금 이 자리에서 되고 있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마음이 중심에 있습니다.

마음을 경계로 했을 때, 마음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마음 안쪽에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가져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 바깥쪽에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세상에 대해 등지고 전격적으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그 소망하심을 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천국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마음이 향하고 있을 때, 이 세상과 우리 마음을 몸이 연결해 줍니다.
자! 요 구조에서 샘 라이프스타일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만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 계명만 제대로 지켜지면 나머지 아홉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질 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마음과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연결시켜 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지하수 층입니다.
이때 그 지하수 층에 흐르는 물, 즉 하나님 마음속에 흐르는 생각과, 하나님 마음속에 흐르는 말과, 하나님 마음속에 흐르는 뜻이 예수님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그 연결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있는 곳으로 분출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몸은 샘이 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지하수 층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뜻과 생각과 말을 예수님의 몸은 분출해 냅니다.
이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샘의 특징을 의인화해서 생각할 때, 샘은 절대로 자기가 분출해 내는 샘물이 흘러갈 지표면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샘 자체와는.
그냥 자기는 지하수 층에 연결되어 있는 물을 지표위로 올려 보낼 뿐이지, 물을 올려 보내는 지표 위의 상태가 쓰레기 하적장인지, 바위틈인지, 사막인지 이런 것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

요.
이상하게 들리지 모르지만, 나의 민족이 식민지하에 있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 샘으로 있으셨습니다.
마음이 하늘과 연결되어서 그때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지하수 층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분출 시키고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넣어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뜻을 표현하고 내 보내고 있었을 뿐이지, 당신의 몸이 놓인 그 장소가 로마의 식민지하의 장소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한 겁니다.
'식민지하에 있느냐? 그러면 세금 내라! 그러나 너희 마음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인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려라.'
이 말씀을 지금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너무 극단적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샘 라이프스타일로 일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을 하고 있느냐에 관심이 다~ 가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흘러 나왔고, 예수님이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면, 하나님의 뜻이 그 손끝과 발끝에서부터 샘솟아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흘러나오는 이 지표의 환경과 상황에 대해선 아무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당신이 샘 이셨기 때문에.

왜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으셨을까요?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니에요.
관심이 짧아서? 아니에요.
지표의 세계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그러면, 지금 식민지가 된 이 상태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기서 마음 붙이고 살라'고 말하

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식민지화하게 했습니다.
그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어? 우리나라도 일제식민지하에 있었는데 이상한 말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김 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기독교인으로서 독립 운동한 33인 중 18명인가 17명인가가 기독교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기독교인들은 그럼 다 뭐냐?
저도 궁금해요, 그분들이 제대로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저도 궁금해.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다 샘물 되면 되었어요.
샘이 됐으면 되요, 샘.
어~! 저렇게 나라와 민족의 상황에 대해서 비애국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어이구~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초대교인들이 예수님 따라서 모두가 샘 라이프스타일로 살았습니다.
핍박하자 핍박을 받고 다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그 나라에 있지도 못했고, 밖으로 나가서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녔습니다.
모두가 다 샘물이 되었을 때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을 식민지화했던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립니다.
전 이렇게 믿습니다.
김 구 선생님이 기독교인으로써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승만 씨가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33인 중에, 서명한 그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해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모두가 예수님처럼 식민지하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마음의 관심을 끊고, 하나님께 관심을 다 돌려서 하늘의 뜻과 하늘의 그 샘이 흘러나오는 샘물이 되었더라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하고 있는 동안에, 일본제국 자체가 로마제국처럼 기독교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왜 이 지표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겁니까?

왜 우리가 그 지표에 현실과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왜 지표의 상황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개선책을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겁니까?
기도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지표의 상황에 대한 판단과 계산이 선 다음에 기도합니다.
'지표의 상황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은 하나님과는 끊어져 있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나 다 샘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모~든 관심이, 어떻게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과 연결을 하느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과 지금 연결을 하느냐에 온 신경을 다 쓰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연결이 되면 그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내 몸이 가는 곳, 내 몸이 있는 곳, 그 지표의 상황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상황이라면 전부 동쪽으로 가야 맞는 대응책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나는 혼자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 지표 위의 세계의 흐름은, 지표 위의 상황의 전개는 하나님께서 주관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관심을 꺼버리는 겁니다.

자, 내 몸이 지금 가정 안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생기고 자식과의 문제가 생깁니다, 지표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는 샘입니다.
지표의 상황과 관계할 것이 없어요, 관심을 둘 일이 없습니다.
온통 마음의 관심은, 내가 몸이 지금 있는 가정이라는 지표의 상황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다 쏟고 하나님과 연결을 합니다.
그때 내 몸은, 내 몸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하늘의 뜻과 하늘의 말씀과 하늘의 기운이 샘솟아 오르는 샘이 됩니다.
나는 그저 샘이 될 뿐입니다.
그 샘물이 흘러서 뭐 자식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 아내에게 무슨 관계가 일어나는 일이 생길지 상관없습니다. 관심 둘 것도 없어요, 나는 샘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가정의 역사를.

‘샘 라이프스타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식민지하에 있지만 그게 뭐 어때서? ‘So What?’

하나님께서 식민지화 되게 됐으면 식민지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대한민국에서 군대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 안에 살면 되는 거고, 대한민국에서 입시제도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따라 가면 되는 거고,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으면 거기 살면 되는 거예요.

거기 세법에 따라서 세 내고 살면 되는 겁니다.

후회할 것도 없고, 안타까워할 것도 없고, 미국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스위스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곳은 내버려둬요, 이 지표상황은 내버려둬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버려두고, 나는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쏟아서,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 지표 위에, 하나님 나라의 뜻과 그 맑고 맑은 샘물이, 하나님의 생각이 샘솟게 하는 샘이 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상관입니까?

자식이 막 난리가 났어요.

등 돌리세요!

나는 샘이 되면 돼요, 이 지표의 상황 상관할 거 없어요.

내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무슨 상관입니까?

등 돌려요. 그냥 하나님과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샘이 솟아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라는 지표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되던 안 되던, 망하던 흥하던,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해야지, 하나님이 식민지 되게 하면 식민지 되는 거지 무슨 잔소리가 많아요?

일본이 우리 식민지 했을 때, 우리가 일본전체를 먹을 수도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모~든 기독교인이 샘이 됐다 그러면, 일본제국이 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을 것이고, 그러면 동경까지 우리나라가 됐을 수도 있지요.
이건 뭐 그냥 하는 소리니까 이 말씀 갖고 따질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내 몸이 놓여 져 있는 지표 위의 상황에 대해서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샘이 됩니다.
아~! 십자가가 있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마치 해외로 나간 화교들이, 직사각형의 칼과 동그랗게 생긴 이 도마만 있으면 어딜 가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음이 하나님 거.
어떻게 바쳐요?
십자가로 이 지표의 상황에 대해 죽어서 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만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표 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수중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아! 나머지여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제로원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샘 라이프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이대로 살고, 이대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